



하상주보

2017년 8월 6일 (가해)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제1653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마태 17,1-2)



제1독서 다니 7,9-10.13-14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화답송 시편 97(96),1-2.5-6 (© 1ㄱ과 9ㄱ)

◎ 주님은 임금입니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주 님 은 임 금 이 시 다. 온 땅 위 에 지 극 히 높 으 신 분 이 시 - 다

○ 주님은 임금입니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흰 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

○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 ◎

○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

제2독서 2베드 1,16-19
 <우리도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7,1-9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성가안내

- 입당성가: [72] 다불 산의 예수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 성체성가: [498] 예수여 기리리다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 파견성가: [15] 주님을 찬미하라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7,9-10.13-14

그분의 웃은 눈처럼 희었다.

⁹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웃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¹⁰ 불길이가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퍼졌다. ¹³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¹⁴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제2독서

베드로 2서
1,16-19

우리도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¹⁶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 줄 때, 교묘하게 꾸며 낸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¹⁷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¹⁸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¹⁹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 오고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

마태오
17,1-9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그 무렵 ¹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²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³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⁴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⁵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⁶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⁷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⁸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⁹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묵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말하였습니다. “압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마태 16,22). 실망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챈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갖고 계신 당신의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볼 산에 올라 기도하시자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웃은 빛처럼” 변화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 “그분의 웃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모세와 엘리야도 증언합니다. 빛나는 구름 사이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느 하느님 아버지의 증언은 예수님의 신원을 결정적으로 확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에서 내려오실 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 때까지, ‘거룩한 변모’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그만큼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을 신자들에게 주시시키면서, “그 거룩한 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고 목격담을 전해 줍니다. 우리는 고통과 희생 없이 영광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를 충실히 따를 때 우리가 받는 영광에 대해 알려 줍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

헤라르트 다비트(Gerard David, 1460-1523)는 16세기 북유럽 플랑드르 회화의 대가이다. 그는 균형 잡힌 견고한 화면 구성과 우아하고 조화로운 색채감각으로 자연풍경과 성경의 내용을 하나로 결합시켰는데, 그가 1505년에 그린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에 그 특성이 잘 나타나고, 그 배경은 마태오복음 17장 1-9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 산을 타볼 산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축복의 자세로 언덕 위에 거룩하게 서 계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화가는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강조하려고 그분의 머리 뒤에 황금색 후광을 그려넣었다. 그런데 그분 위에

갑자기 구름이 일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름 속에 있는 모세는 깜짝 놀라면서 손을 벌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엘리야는 두 손을 경건하게 합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

제자들은 춤을 추는 것 같이 부드럽고 역동적인 동작으로 눈부신 광경을 바라보고 있고, 베드로가 나서서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려 예수님께 말한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마태오 17,4)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에게 전해지고 구름 속의 하느님은 몸 전체가



Gerard David, Transfiguration of Christ

거룩하게 빛나는 곤돌라에 둘러싸여 말씀하신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오 17,5)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이 맨발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왜 그들은 맨발일까? 맨발은 수난을 상징하고, 거룩한 변모 사건이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마태오 17,9) 거룩한 변모는 부활처럼 수난과 죽음을 거친 후에야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을 배경으로 오른쪽 나무 아래에는 제자들이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무엇인가

묻고 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거룩하게 변모할 때, 어떤 사람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으나 고쳐주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그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마태오 17,20) 믿음이 약하니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변모하지 않으니 주님을 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손용환 신부, 그림 성서 박물관)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마태 17,1-2)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공관 복음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 말씀에 따른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일을 기리는 축일이다. 오늘 축일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9월 14일)의 40일 전에 지낸다. 교회의 전승에 따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40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의 결과인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보여 주시고자 거룩한 변모의 표징을 드러내셨다. 1457년 갈리스토 3세 교황이 로마 전례력에 이 축일을 도입하였다.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100주년 기념

성모신심 특강을 위한 성경 공부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맞이하여 본당에서는 8월 16일(수)과 17일(목) 저녁 성모신심 특강이 열립니다. 이번 특강은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며,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 생활에 대해 알아봅니다.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미리 성경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 오시면 강의를 들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① 하느님은 첫 여인인 하와를 죄로 유인한 뱀(사탄)이 누구에게 머리를 밝히리라고 예언합니까? (창세 3,15)
- ② 구약의 아담은 누구의 원형이었습니까?(로마 5,14)
- ③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인사했습니까? (루카 1,28)
- ④ 마리아는 성서에서 누구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까?(루카 8,19-21)
- 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마리아를 누구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까? (루카 1,43)
- ⑥ 평생을 동정으로 사셨던 성모님은 예수님 외에 친자식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누가 성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까?(요한 19,27)
- ⑦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천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루카 1,35)
- ⑧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엘리사벳과 뱃속의 아기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루카 1,41-42)
- ⑨ 성령강림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마리아께서 힘쓰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1,14)
- ⑩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루카 1,38)
- ⑪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왜 복되다고 합니까? (루카 1,45)
- ⑫ 목자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루카 2,19)
- 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아들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요한 2,5)
- ⑭ 천사는 성모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마태 1,21)
- ⑮ 구원사업의 절정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제자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요한 19,26)
- ⑯ 우리는 다 함께 누구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1코린 12,27)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100주년 기념 성모 신심 특강



강의_ 오세안 바오로 신부님
(오마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임)

첫째날_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냐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 역할

둘째날_ 7시 30분 미사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 생활

알림

미사 중 스키프라와 초 봉헌식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당일 성당 입구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시간 : 오후 7시 30분 - 10시 30분
장소 : 성 정바로로 성당



성 정바로로 성당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사랑의 목주 기도 스테이션

바오로회에서 자매님 · 형제님들과 함께
목주 기도를 봉헌하는 사랑의 기도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기도 지향

- † 바오로회 회원들과 본당 공동체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 †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도합니다.

목표

200 단

현재

154 단

기도 지향 모집

현재 단수가 목표 단수만큼 달성되면
기도 지향이 새롭게 바뀝니다.
저희 본당과 커뮤니티를 위한
기도 지향 제목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이성근(예레미야)
sleeh@yahoo.com



Pope Francis sends message to Brazilian youth meeting in Aparecida

Pope Francis has sent a message to the National Youth Meeting at the Sanctuary of Aparecida in Brazil, inviting young people to turn their lives into leaven for a better Brazilian society.

His message came at the conclusion of the “Rota” (Way) 300 projects, which closed on July 29 with a large celebration at the sanctuary. The initiative celebrated 300 years since the discovery of the statue of Our Lady of Aparecida in the Paraiba do Sul River.

Pope Francis told the young people that Mary is a sign of hope and that she knows the difficulties awaiting young people. He also encouraged them to live with a missionary spirit.

“Dear friends, in the midst of daily uncertainties and insecurities and in the midst of the precariousness created by unjust situations, you have one certainty. Mary is a sign of hope who will impel you with a great missionary drive. She knows the difficulties with which you live. Her attention and motherly care help you know that you are not alone.”

The Holy Father also recalled the Brazilian story of the poor fishermen, who, after an unfruitful fishing expedition in the Paraiba do Sul River, cast their nets one more time and discovered to their surprise a broken statue of Our Lady, encrusted with mud. They first found the statue’s body and then its head.

“As I told the Brazilian bishops in 2013, this story holds an important symbolism. What was divided has been reunited, just like the heart of those fishermen and colonial Brazil once divided by slavery, realities which found unity in the faith, which the black statue of Our Lady has inspired.”



Pope Francis then invited the young people to let their hearts be transformed by the encounter with the Mother of Aparecida.

“May she transform the ‘nets’ of your lives – nets of friendship, social networks, material and virtual nets – realities which are often divided, into something more meaningful. May they become communities! Missionary communities ‘going out into the world!’ Communities, which are light and leaven for a more just and fraternal society.”

The Pope also recalled his message to the CELAM Meeting earlier this year, asking young people “not to be afraid to take risks and to work to build a new society, imbuing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university environs with the force of the Gos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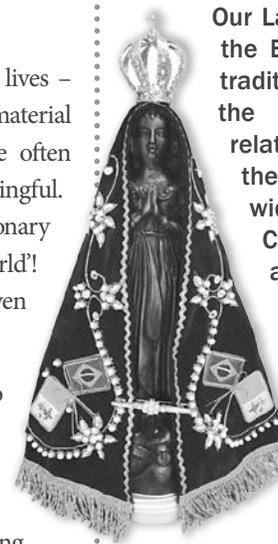
“Do not be afraid to fight corruption, and do not let yourselves be seduced by it! Trusting in the Lord, whose presence is the source of abundant life, and under Mary’s mantle, you can rediscover the creativity and strength of being protagonists for a culture of unity and, therefore, create new paradigms to guide the life of Brazil.”

Pope Francis concluded his message with a prayer.

“May Our Lady – who in her youth knew how to courageously embrace the call of God for her life and go forth to those most in need – walk ahead of you, guiding you in all her ways!”

<August 1st 2017, Vatican Radio>

· OUR LADY OF APARECIDA ·



Our Lady of Aparecida, a title of the Blessed Virgin Mary in the traditional form associated with the Immaculate Conception related to a clay statue bearing the same title. The image is widely venerated by Brazilian Catholics, who consider her as the principal patroness of Brazil. Historical accounts state that the statue was originally found by three fishermen who miraculously caught much fish after invoking the Blessed Virgin Mary.

The statue is currently housed in the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Our Lady of Aparecida in Aparecida, São Paulo, Brazil.

CCD

~2017~ SUMMER CAMP

- **WHEN** : Aug 11(Fri) – Aug 13(Sun)
- **WHO** : Rising 4th to 8th grade
- **WHERE** : Pine Creek Retreat Center
(1794 Back Creek Road, Gore, VA 22637)
- **COST** : 1 Camper -\$120
2 or more from the same family - \$100 / person
- **Registration** : Sundays, July 9 - August 6
(after 10am & 11:40am Mass at the cafeteria)
- **For more information** :
please contact **Chris Suh** (서동민)
chris.dong.suh@gmail.com

ANNOUNCEMENT

1. 2017-2018 Sunday School Registration

- **When** : Sundays, Aug. 6-Aug. 27
(after 10am & 11:40am Mass)
- **Where** : Hasang Building Lobby
- **Fee** : 1 child/family \$80
2 children/family \$150
3 children & more/family \$200
(checks or cash)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제7차 꼬미시움 주관 일일 피정 개최

“레지오 단원의 영적 성숙” 순명과 봉헌 되새긴 피정

미 동중부 레지오 마리아의 꼬미시움(단장 김국 스테파노)이 주관하는 제7차 일일 피정이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영적 성숙”을 주제로 7월 29일(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근 4개 한인 성당의 레지오 단원 306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 기도 및 묵주 기도, 꼬미시움 영적 지도 신부인 본당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원주 교구)의 환영사와 권오영(프란치스코) 신부(서울 대교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권 신부는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의 군대로서 가톨릭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레지오 단원들은 영적 성숙을 위해 ‘제정신’을 확실히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주었다. 또한 한눈과는 단원을 발견하는 즉시 모든 단원들을 일으켜 세워 도수 체조를 하는 열차려를 실시, 단원들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제2강의에서 권 신부는 ‘제정신’을 차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순명’과 ‘봉헌’을 제시했다. 자신이 레지오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교만도 불순명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불순명이 레지오 단원의 영적 성숙에 큰 장애물임을 강조했다. 또한 ‘순명’은 성모님과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며, ‘봉헌’은 자신을 바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정의 백미는 파견 미사 중에 있었다. “평화를 빙니다” 순서에 이르자 권 신부가 이날 참석한 레지오 단원 306명 전원과 악수를 하자고 제안, 단원들이 큰 원을 이루고 신부를 따라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빌며 악수를 나누는 감동적인 광경이 연출되었다. 미사 후 단원들은 이날의 ‘평화의 악수’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파견 성가 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함께 부르며 참석자들은 피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리아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꼬미시움 김국 단장은 2018년 7월 워싱턴 D.C.의 가톨릭 대학(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에서 있을 제8차 피정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2017년 제7차 피정의 종료를 선언했다. 피정 후, 본당의 박재신(소피아) 한국의 어머니 프레스비디움 단장은 “권 신부님의 강의를 너무 현실과 밀접하게 느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1 2017 - 2018년도 사목보고회

- 일시: 8월 6일(일) 오후 1시, 성당 (점심식사: 오후 12시)
- 참석 대상: 사도임원, 재정위원, 사도회 임원, 구역봉사자 (소공동체), 단체장(신심 및 활동 단체), 청소년 사도회, 주일학교(CYO, CCD) 교감, 하상문화원 원장, 하상방송 코디네이터, 하상성인학교 교장/교감, 하상한국학교 교장/교감
- 문의: 지경수 총무 (571)331-6047

2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8월 15일(화)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대축일 미사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오전 10시, 오후 8시

3 구역임원 교육

- 일시: 8월 6일(일) 오전 11:30 (B-1,2)

4 성모회 임원회

- 일시: 8월 6일(일) 오후 1시 (B-1)

5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8월 6일(일) 오후 1시 (B-3,4)

6 공동체 기도회 모임

- 일시: 8월 12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토요일(8월 12일)은 공동체 기도회 날입니다.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7 제77차 예비자 입교식

- 일시: 9월 3일(일)
- 접수: 매주 일요일 8시, 10시 미사 후(선교부 테이블, 친교실)
- 문의: 사무실 (703)968-3010, 유재운 요셉 선교부장 (703)628-9314

8 CCD 여름 캠프 신청

- 신청: 미사 (8시, 10시, 11:40) 후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캠프 일정: 8월 11일(금) - 8월 13일(일)
- 장소: Pine Creek Retreat Center
- 문의: 서동민 (571) 435-6476

9 2017 - 2018년도 주일학교 등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을 받고 있으나 학부모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8월 27일까지 주일 오전 10시, 11시 40분 미사 전·후(하상관 로비)
- 등록비: 한 자녀 \$80 / 두 자녀 \$150 / 세 자녀 이상 \$200
- 문의: 윤정 보일 (703)371-3589

10 단체부 회의

- 일시: 8월 13일(일) 오전 11:40 (B-3,4)

11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8월 13일(일) 오후 1시 (B-3,4)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6일(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사목보고회(오후 1시, 성당),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4), 바오로 총회(오후 6시, 친교실), 성서통독반(오전 11:50, B-1,2), 로고교회 영화 상영(오후 6시, 하상관)
7일(월)	연중 제18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8일(화)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친교실), 성경기도회(오후 8시, 도서실),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9일(수)	연중 제18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서통독반(오후 7:30, A-1,2)
10일(목)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아침미사(오전 6시)
11일(금)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CLC(오후 8시), CCD Summer Camp(8월 13일까지), 라파엘 Summer Camp, 바오로 형제회 모임(오후 8시)
12일(토)	연중 제18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13일(일)	연중 제19주일	단체장회의(오전 11:4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성서 통독반(오전 11:50, B-1,2)

12 2017 - 2018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 2017 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을 시작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 등록: 9월 3일까지/ 11:40 미사 후 하상관
- 입학 대상: 유치부 - 12학년
- 문의: 이정명 교장 (571)215-0479

13 2017년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 교육 기간: 2017년 9월 5일 - 2017년 12월 3일
- 등록: 2017년 8월 13일 - 9월 3일까지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수강 과목: 컴퓨터 기초, 컴퓨터 중급(인터넷, 워드), 컴퓨터 고급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패드, 동양화반(초급, 중급), 미술(덧상, 수채화, 아크릴), 시민권준비반, 문예창작교실(시), 생활영어, 수지요법(초급, 중급), 손뜨개교실, 한의학, 건강양식, 생활교실, 합창교실, 한국무용, 장구반(초급, 중급), 기타교실(초급, 중급) 스트레칭 요가, 라인댄스
- 개강일: 2017년 9월 5일(화) 오전 9:20
- 대상: 전 신자와 일반인 20세 이상
- 등록금: \$50(점심 제공)
- 문의: 김명희 율리야나 교장 (703)217-2775

14 본당 봉사부 지침(안보, 안전) 관련 세미나

- 일시: 8월 20일(일) 오전 11:30 (B-1,2)
- 문의: 허진 (703)376-1372

15 신입 본당 봉사부원 모집

- 접수: 매 주일 8시, 10시 미사 후(친교실 K of C 테이블)
- 문의: 허진 (703)376-1372

16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100주년 기념 성모 신심 특강

- 강사: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 (오마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임)
- 첫째날: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인가?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 역할
- 둘째날: 7시 30분 미사/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 생활
- 일시: 2017년 8월 16일(수), 8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 10시 30분
- 장소: 성 정 바오로 성당
- 주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특강 참여 전에 <성모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서 (주보 참조)의 답을 미리 성서에서 찾아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 특강 둘째 날 미사에는 스카폴라와 초 봉헌식이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당일 성당 입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7 미 동북부 ME 부부 주말 여행

- 부부간의 성숙한 대화를 통하여 행복한 부부생활을 도와주는 특별한 주말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9월 2일(토) - 9월 4일(월) Labor day weekend
- 장소: Double Tree Hilton Hotel, NJ
- 문의: 김아놀드 / 레지나 부부 (703) 477-2446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18주간: 민수 1-5/ 마르코 5장

* 여름 휴가중 *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8월 10일(목) 오후 5:00-6:00
- 8월 11일(금) 오후 8:00-9:00
- 8월 13일(일) 오전 6:00-7:00

- 가톨릭 종합 뉴스
- CPBC 특집 / 글로벌 나눔 4: 아시아에 사랑을 심다. 필리핀 쓰레기 섬 빈민들을 돕는 한국의 요셉의원 친구들
- 뿌깔파 선교 활동 이모저모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7월 30일 (연중 제17주일)

주일헌금	\$ 7,920.00
교무금	\$ 6,807.60
교무금(신용카드)	\$ 3,200.00
특별헌금	\$ 210.00
2차 헌금	\$ 0.00
합계	\$ 18,137.6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종분(루시아),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종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송영해(요한),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배(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영식(토마스),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경(모니카), 이수선, 김희순(세실리아)

- ♥ **군복무자**
- 강로련(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치노), 이슬(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복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베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월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디케어 흥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Bank of Hope SBA 대출/융자 jessie.kim@bankofhope.com 571-488-500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공인회계사(CPA)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차 (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광고 접수중! 주보를 통해 교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홍보하세요~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주)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호현 (요셉)